



2018년 1월 14일(제859호) 연중 제2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예수님 소개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당으로 초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에 가면 좋은 점, 느끼는 점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은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한번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도 찾아올 수 있지만 미사 시간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느끼기를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보면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직접 체험해보는 것만 못하는 것도 알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먼저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서 직접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성당으로 이끌 때, 이야기하고 와서 보게 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전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당에 대해 이야기하고 보고 느낄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성당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당에 오고 싶음을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당에 오는 것이 좋습니까? 좋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것도 보여줄 것도 느끼게 해줄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성당에 오는 것이 힘들고 미사가 힘들다!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는데 그것을 먼저 깨닫고 느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조금 더 성당에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듣고 더 보고 더 느끼시길 바랍니다. 한 번씩이 아니라 백 번, 천 번을 하시길 바랍니다.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들을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상영신(보니피시오) 신부
동해(해군 1함대) 성당 주임

- | | |
|----------------|--|
| 제 1 특 시 | 1사무 3,3ㄴ-19 |
| 회 목 송 |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 제 2 특 시 | 1코린 6,13ㄷ-15ㄱ.17-20 |
| 복음 보호송 | ◎ 알렐루야
○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 |
| 복 음 | 마태 1,35-42 |
| 영 성 제 송 |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진리를 살다

미사는 공적 집회 예식입니다. 따라서 예식 전체를 마감하는 마침 예식이라는 형식을 가집니다. 미사의 마침 예식은 주례 사제가 신자들에게 집회를 마치는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을 강복하여 세상에 파견하고 미사 전체를 마감하는 단순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짧은 순서를 가지는데 사목적 훈화(공지사항), 인사, 강복, 파견, 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침 예식에서 신자들은 말씀의 식탁에서 깨달은 진리와 교훈을 간직하고, 성찬의 식탁에서 기념하고 체험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내어줌의 의미를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사명과 힘을 받고 세상에 파견됩니다.

사목적 훈화(공지사항)

영성체후 기도가 끝나면 사제는 필요에 따라 사목상의 당부나 공지 사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제는 이 당부나 공지사항이 또 다른 강론(?)이나 지루한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내용이 주보에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과잉 친절로 또 한 번의 내용 읽기는 미사 중에 형성된 경건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짜증나게 합니다. 최대한 짧막하게 요약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속에 평안히 지내시기를 소망하는 사제의 개인적인 작별 인사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위한 올바른 장소는 사제석이며 이에 비해 이어지는 강복은 제단에서 거행하기를 권고합니다.

인사와 강복

사제는 미사 시작할 때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마침 인사를 합니다. 마침

마침예식

예식의 인사는 일종의 하직 인사입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신자들을 향해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 나라에서 온갖 축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행사를 마치고 사람들을 보낼 때 주님의 축복을 비는 것은 초세기부터 이어 온 교회의 좋은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침 예식의 강복 양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성삼 강복 양식 외에도 전례 시기별 강복(14개)과 성인 축일 강복(4개), 기타 강복(2개) 등 도합 20가지의 특성에 따른 ‘장엄 강복’이 있고 부가하여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26가지의 다양한 기도 형식의 축복 기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사목자들이 특히 축일이나 주일을 포함한 특별한 기회에 위의 다양한 강복을 선택하여 사용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마다할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

감사의 축제인 미사는 가톨릭신자 생활의 정점입니다. 미사는 평범한 일상생활 전체를 그리스도교적 생활로 인식하게 하고 믿음의 생활을 위한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신앙인은 일상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로부터 새로이 자신의 선한 삶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최창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선물 위에서

잔뜩 받은
선물 위에서
우울하게 앉아
힘들다고
받은 게 없다고
투덜대며 인상만
쓰고 살았다.

내가 올라있는
시간, 공간, 사람들
모두가 선물임을
왜 모르고 살았을까.

상화이야기

사무엘과 엘리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조화로운 색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사무엘과 엘리의 대화를 그린 그림으로, 주님께서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으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알려주는 장면이다.

엘리는 한쪽 발을 발 받침대에 올리고 앉아 있는데, 오른쪽 책상에는 향이 피워져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어린 엘리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 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1사무 3,10.19)

존 싱글톤 코플리(1738-1815)
1780년 作,
캔버스 위 유화, 196.85 X 152.08 cm
히트피드 미술관, 코네티컷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주일: 백두산 이거레 신부

◆ **군신교단 미사 및 모임**
때: 1월 18일(목), 18:00
곳: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군종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임**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종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변함없는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